

청년층 고용률 18개월 째 내리막... 30대 ‘그냥 쉬었음’ 최다

국가데이터처, 10월 고용동향

취업자수 전년비 19.3만명 늘어
보건업·예술스포츠 서비스 등 ↑
농림어업·건설업 등 취업자 줄어

60세 이상·30대 취업자 증가하고
20대·40대·50대는 줄어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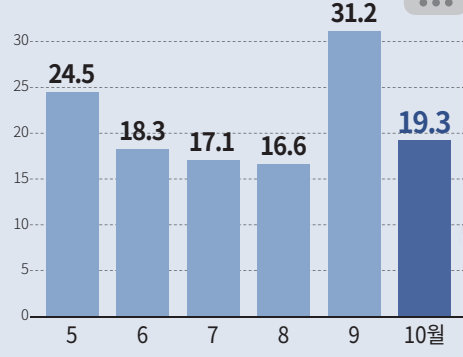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청년층 고용률이 18개월 연속으로 뒷걸음질했다. 또 30대 연령층에서 ‘그냥 쉬었음’ 인구가 33만 명대에 달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도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904만 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9만3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 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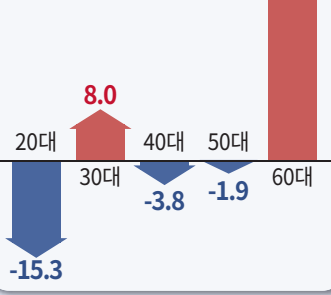
전년동월대비, 단위: 만 명



자료/국가데이터처

연령별 증감

10월 기준, 단위: 만 명



그래픽/정민주 기자

비스업(7만 명), 도매및소매업(4만6000명), 교육서비스업(1만2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이에 반해 농림어업(-12만4000명), 건설업(-12만3000명), 제조업(-5만1000명) 등에서는 줄었다. 건설업은 18개월, 제조업은 1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연령대별로는 60세이상(33만4000명)과 30대(8만 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20대(-15만3000명), 40대(-3만8000명), 50대(-1만9000명)에서는 감소했다.

10월 고용률은 63.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올랐다. 지난 1982년 월간 고용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10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6%로 1.0%p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5월부터 18개월 연속 내리막길인데, 이는 20대 취업자 감소가 15만 명대에 이르는 것과 맞닿아 있다.

그간 정부 관계자 등은 20대의 경우 인구 급감이 고용 부진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둘러싼 취업난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공미숙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 위주의 채용, 수시 채용이 청년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청년층이 많이 가는 산업인 제조업이 안 좋은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612만1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만8000명 늘어났다. 또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구직활동을 미루는 ‘그냥 쉬었음’ 인구가 258만명으로 13만5000명 늘었다.

특히 30대에서 2만4000명 늘어난 33만4000명을 기록하며 2003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미숙 국장은 “30대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면서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육아·가사부문이 줄고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인원이 늘어나는 경향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10월 임금근로자 수는 2248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1000명(1.4%) 늘었다. 상용근로자는 28만6000명(1.8%), 임시근로자는 7만9000명(1.6%)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5만5000명(6.0%)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655만2000명으로 11만8000명(-1.8%)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만9000명(1.3%) 증가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7000명(-2.7%) 감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무안군

나의

제5회 YOUNG DREAM

페스티벌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2025. 11.14.(금)~11.16.(일)

무안군 삼향읍 남악중앙공원 일원

“생산적 금융 508조 투입 위험가중치 조정 등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원화 스테이블코인, 뒤쳐지면 안돼
생산성·부가가치 상승기회 열어줄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KB·신한·하나·우리·NH 등 5대 금융지주가 생산적 금융으로 508조원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시스템화 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출 이자 이익에 의존하는 포트폴리오를 벗어날 수 있도록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5대금융은 가계대출에 편중된 기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분산하고, 국가 성장동력과 연계된 부분으로 자본을 배치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으로 508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KB 110조원 ▲신한금융 110조원 ▲농협금융 108조원 ▲하나금융 100조원 ▲우리금융 80조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지주가 대출 이자 이익에 의존했던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 있도록 불편해 하는 규제는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권은 생산적 금융으로 508조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이로 인한 건전성 위축시 해결 방도는 없는 상황이다. 혁신기업 대출처럼 손실 가능성이 크더라도 자본 확충 부담 없이 일정 수준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금융지주회사법 같은 경우 핀테크 부분을 중심으로 몇가지 준비하고 있다”며 “위험가중치 조정도(생산성 금융을) 진행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애로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도겠다”고 말했다.

◆ 원화스테이블 코인, “흐름에 뒤처져선 안돼”

이날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KRW)의 가치와 연동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국제적 흐름에 뒤쳐지면 안되고, 국제적 정합성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적인 움직임이 어떤지, 각국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방식 수준을 통해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지니어스법과 같은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다. 이 법이 도입되면 달러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 간 송금이나 지급결제 등에 상당한 규모로 사용된다. 이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는 만큼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기회를 열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고,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만큼 혁신의 기회를 열어주는 쪽으로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